



하이트산업(주)

## 중소기업 어려움, 합병 및 사업다각화로 돌파 동서유리공업 · 신화인쇄 · 세진SP합병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사업확장을 꿈꾸어 오던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이번 IMF의 고난은 더욱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간판을 내림은 물론, 이의 여파로 인한 실생활고에 부딪히며 가지지 못한 자의 슬픔을 이중으로 견디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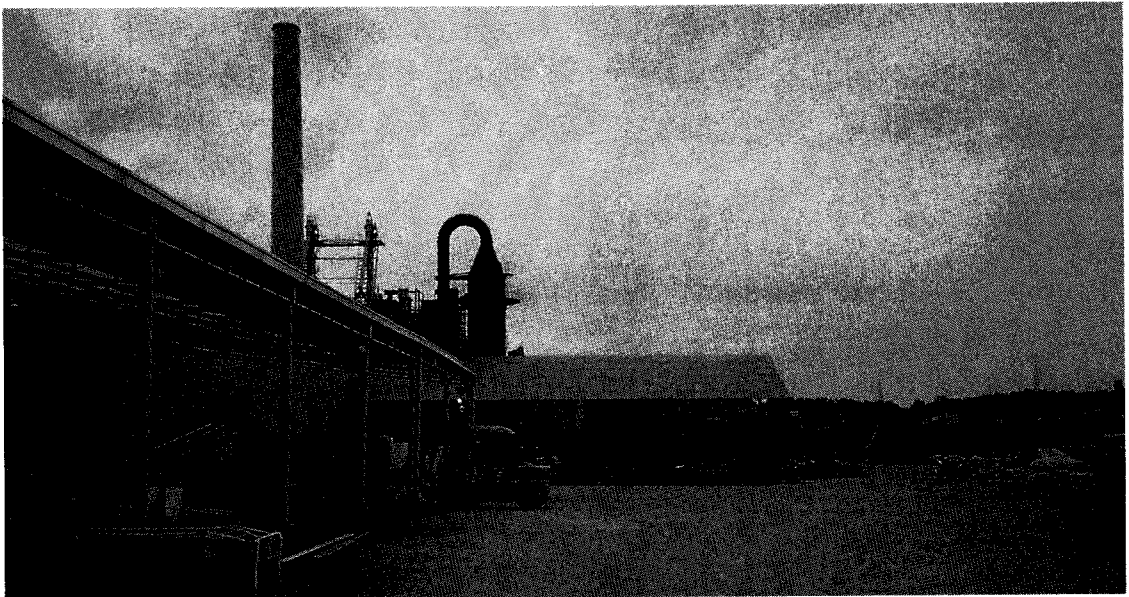
최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실업자의 대량 양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암담하게 무너져 가는 기업들의 무기력한 모

습만이 보여지는 이 때, 지난 7월 1일, 경영난조에 빠진 중소기업 세개업체가 합병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며 위기극복의 첫 걸음을 내딛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하이트산업(주)이 바로 그 업체인데 자동유리제병업체인 동서유리공업(주)이 라벨제조업체인 신화인쇄와 철강제조업체인 세진 SP 등을 흡수·합병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개별 업체들이 합병을 하게 될 때는 연계성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합병이 진행되는데 하이트산업(주)의 경우 기존 하이트맥주병의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해



▲ 하이트산업(주) 진주공장 유리병 생산 시설

오던 동서유리공업(주)이 하이트맥주의 라벨을 생산하던 신화인쇄와, 사업다각화의 측면에서 시작한 건축용 철강제조업체의 세진 SP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조선맥주, 즉 하이트맥주의 가장 큰 계열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하이트산업(주)은 합병대상 3사의 자본금에 하이트맥주의 지원을 받으며 건설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될 것이다.

하이트맥주하면 생각나는 특징은 지하 150m 암반수로 제조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표식이 나타나는 라벨일 것이다.

이 라벨은 맥주병의 적정온도로 냉각되면 하이트맥주의 파란색 표식이 라벨에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맥주의 제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하이트맥주와 소비자간의 친근감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 라벨은 현 하이트산업(주)의 대표이사인 황규명 사장이 경영하던 신화인쇄가 개발해 실용신안등록(제 122191호)을 낸 제품으로 현재 하이트산업(주)은 사업전개의 첫 디딤으로 이 기술을 토대로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가고 있는데, 지난 달 중국 심천시 맥주사에 4천만 장의 라벨을 1차로 선적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업체와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하이트맥주가 월 1억병 정도를 소요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차 선적의 양은 결코 적지 않은 셈이다.

또한 중국 심천시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커 한 도시에만도 맥주공장이 여럿 있어 기존 수출 대상회사와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중국 맥주의 라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호기가



◀ 하이트산업(주)이 중국에 수출한 온도변화 표시 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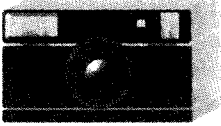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병이 7월 1일부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4개월 전부터 이를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와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하이트산업(주)은 기업의 기본 목표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과감한 군살빼기를 수행 중이다.

현재 하이트산업(주)은 동서유리공업(주)의 안양·진주공장과 신화인쇄의 안산공장, 세진 SP의 인천, 당진공장 등 사업규모에 비해 여러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3개 업체가 합병을 하다보니 자연히 공장의 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이트산업(주) 한 개 업체의 규모에 적정하게 각 공장의 특성을 살려 2개 공장을 정리하고 진주공장과 남동공단, 안산공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서유리공업(주)이 나머지 두개 업체를 흡수·합병을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 주로 유리병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하이트산업(주)은 현재 IMF 이후 병수요의 급격한 내수부진에 따라 맥주병의 생산이 적어 현재 안양공장은 가동하지



▲ 하이트산업(주)의 주생산 품목인 유리제품군

않고 있지만 하이트맥주에서 현재 보배와 백학 소주를 인수한 상태이므로 장기적으로 이 두개 업체의 소주병 생산이 정상화될 1~2년 후에는 하이트산업(주)의 활성화에 본격적인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공장에서 일 150톤 정도의 유리병을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산업(주)은 내년 초에는 멈춰선 1개 라인을 가동하고 안양공장의 컵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정상가동률을 회복할 예정이다.

초창기 계획은 진주공장으로의 일원화였으나 이전 설치비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양공장을 본사 겸 컵생산공장으로 자리매김시켜갈 계획이다.

3개사가 합병되어 한 회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하이트산업(주)은 직원들간의 융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감원 대상이 된 인원들이 현재 4개월 이상 휴직

상태로 되어 있어 이 인원에 대한 걱정한 처리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그간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직원들 각각에게 돌아갈 수 있는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산업전선을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 이 때에 하이트산업(주)의 합병을 통한 거듭나기는 실업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많은 인원의 감축, 그리고 다양한 업종이 한데 묶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적지않은 어려움들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의 거듭남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이트산업(주)의 저력이 우리 산업계 전반에 팽배한 방만함과 위기상황을 극복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윤지은 기자